

사 양

성수기 맞은 돼지, 출하 관리에 전력 질주할 때



김인호 교수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최근 양돈 농장에서 여러 가지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첫번째는 돈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즐거운 비명이며, 다른 하나는 돼지가 잘 크지 않는다 혹은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 등의 말들이 그것이다. 한가지 현상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항상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돈가가 높은 것은 그만큼 도축할 돼지가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출하할 돼지를 갖고 있는 사양가는 지금의 돈가에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양가는 잘 크지 않는 돼지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농가 방문시 사양가와 대화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돼지 이력 과거의 돼지 이력은 단순한 과거 아닌 현재의 거울

농가를 방문하여 사양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의 대부분이 과거의 돼지 이력이다. 과거의 돼지 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돈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당장의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돼지에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지금의 돼지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5월 이후 돈가가 초강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육성사에 들어 있는 돼지의 이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금의 육성돈은 올해 1-2월 이후에 출생한 것들이며, 작년 9-10월에 중부 한 모돈에서 태어난 돼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 여름을 회고해 보자. 작년 여름은 10년만의 무더위 속에 모돈이 힘겨워 하며 어렵게 여름을 보냈다. 따라서 수정률이 매우 낮았으며, 설사 수정이 되어다 할지라도 가을철이면 나타나는 계절성 / 습관성 유사산으로 인하여 2004년 4/4분기 분만률은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유사산 현상이 올해 1-2월까지 지속된 점이 올해의 특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MWS 발생에 의해 1-4월까지 약 52만두의 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PED 발생율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과 2005년 1-3월 도축두수를 비교해 보면, 2005년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만 비교해 보면 2004년에는 1,293천두 였지만 2005년에는 1,207천두로 약 7%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지금 농장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도축할 돼지가 없으며, 그 수준은 작년보다도 더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양돈 전문가들이 지육 단가 5,000원을 얘기하면서 이에 대한 출하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성돈 성장지연 현상의 주요원인은 호흡기 질병

앞서 기술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농장에는 출하할 돼지가 없다는 것과 육성돈의 성장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육성돈의 성장 지연 현상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호흡기 질병에 의해 성장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 혈청 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수의과대학이나 각종 검사소와 얘기 해 보면 호흡기 질병 감염 조건이 예년보다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림 1은 돼지가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돼지가 마이코플라즈마(Mh)나 PRRSV에 감염되면 성장률이 10-60% 까지 감소되며 돼지의 체조성도 정육 축적보다는 지방 축적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까지 고돈가 유지 예측되는 현상 상황에서 호흡기 질병에 감염됐다고 모두 도태시킬 수는 없는 노릇.

성장 정체된 돼지에게 영양소 함량을 높이면서 호흡기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제가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돼지와 유사한 성장능력 보여

돼지가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어 위축됐다고 해서 이를 모두 도태시킬 수도 없다. 양돈 전문가들이 최소 9월까지 고돈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도태라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농가의 현실인 것이다.

필자의 실험실에서 모 사료회사의 의뢰를 받아 사양시험 한 결과에 의하면, 성장 정체 된 돼지에게 영양소 함량을 높이면서 호흡기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제가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돼지와 유사한 성장능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호흡기 질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질병에 감염되면 돼지 체내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 기전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보다도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약제 처방과 함께 영양소 섭취 수준을 올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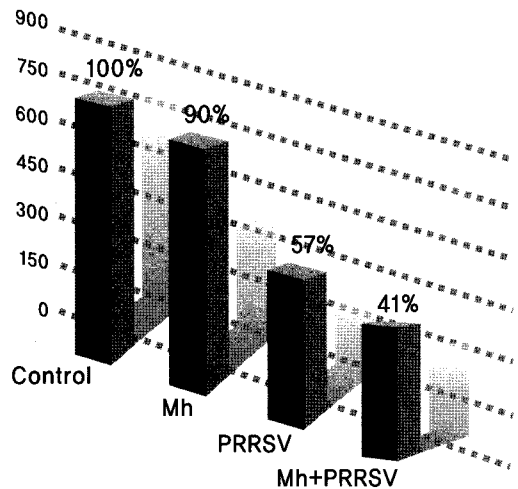


그림 1. 호흡기 질병 감염이 돼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양돈가에게 7월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고달픈 시기 바라건대, 올 여름도 양돈가가 돈 많이 벌기를

7월이면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갈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산과 바다를 비춰주면서 여름 휴가를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양돈 농가에서는 이 여름이 가장 고달픈 계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여름 이후까지 돈가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 관리에 전력 질주하면서 세심한 모든 관리를 통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힘든 시기인 것이다.

바라건대, 올해도 물론이며 내년에도 우리 양돈 농가가 돈 많이 벌었으면 한다. 이것이 양돈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한다. ⑤

